그 사람 지금은

(38) 이효계 前 광주시장 〈하〉

장관때 미국산 쌀·쇠고기 수입 거부…국회서 박수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로서 고향에서 봉사의 공직생활을 마친 이효계(72) 숭실대 총장은 1993년 3월 국무총리 비서실장, 1993년 12월 내무부차관, 1994년 1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을 거쳐 1995년 1월에 한국토지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이 총장은 이곳에서도 2년 7개월 동안 특유의 성실함과 치밀함으로 많은 일을 해냈다. 취임하자마자 러시아에 첫 한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한 이후 베트남에 3곳과 중국 등에 추가로 등에 한국공단을 조성했다.

"-토개공의 해외공단개발사업은 국내 기업에는 해외투자 기회 확대와 현지의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토록 해 상품경쟁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상대국은 인프라시설이 완비된 공업단지를 갖게 돼 짧은 기간에 많은 한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기술이전과 고용증대의 효과를 보게 됐지요"

특히 토개공이 조성하는 공단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 전진기지로 자리 잡아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첨병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또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했을 뿐 아니라 광주에서는 풍암택지지구를 조성, 분양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1992년 8월 농림부 장관에 발탁됐다. 비록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7개월 만에 물러난 단명 장관이었지만 그의 신앙심만큼이나 독실하게 농민의 마음을 다독거렸다.

"농림부 장관이 되면 항상 쌀과 쇠고기 문제로 골치를 앓습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 WTO체제 때문에 쌀 의무수입 할

"토공사장 시절 러에 첫 한국전용공단 광주엔 풍암택지지구 조성하기도"

당량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품질에 3분의 1~2분의 1 가격인 중국 쌀을 선호했는데 미국 측에서 자국의 쌀을 사달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압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O157균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 검역이 잘못됐다고 농림부 차관보를 비롯해 10여명의 검역과학자들을 한국으로 보내 직접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국립검역소 과장에게 물었죠. 자신 있느냐고요. 그런데 자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기준 40개만 하면 모르지만 프랑스 기준 20여개를 포함하면 확실하다는 겁니다. 미국 검역과학자들도 이 기준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는 이 일로 국회에서 '대한민국 외교 사상 가장 통쾌한 일을 했다'며 당시 김영진 의원의 소개로 국회의원들의 칭찬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총장은 장관에서 물러난 이후 전남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3년, 한양대 도시대학원 석좌교수 2년 등 후학을 가르치며 소일했다. 그리고 자제들이 사는 미국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약 력

▲1935년 여수 출생
▲광주고 숭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1961년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전주시장, 광주시장, 전남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토지공사사장, 농림부장관
▲숭실대 총장

그러던 2005년 초 그는 급히 귀국했다. 총장 선거가 있으니 돌아와 달라는 학교 관계자와 후배 교수들의 요청을 받은 것이다.

그는 당시 26명 추천위원 중 16명의 지지를 받고 모교인 숭실대의 제11대 총장이 됐다.

그는 2005년 3월 숭실대 총장에 취임하면서 재임 4년간 받을 연봉 4억8천여만원 전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로 선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중대 결심에 앞서 아들을 비롯해 출가한 딸들까지 모두 모여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족들의 뜻을 물었으며, 이에 가족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특히 사업을 하는 큰딸은 아버지의 생활비를 대주기로 했습니다"

이 일로 숭실대에서는 총장실 점거 사태가 사라지고, 등록

이효계 총장이 지난 5월 과천 서울랜드에 개관한 숭실대 수학창의력 체험관에 들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숭실대 제공〉

금 투쟁이나 임금협상 문제가 쉽게 해결됐다고 한다.

그는 총장으로서 해낸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제가 총장을 맡기 전에 숭실대는 대학교육협의회 평가 40위였습니다. 하지만 17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 대학 담장을 허무는 대신 나무를 심고 지역 주민들에게 캠퍼스를 개방했으며 '21세기형 첨단복합 캠퍼스 건립'을 위해 국내 대학 최초로 운동장 주변에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데크(deck)를 설치했습니다"

이 총장 취임 이후 숭실대는 특히 IT 특성화 대학으로 거

"숭실대 IT특성화 대학으로 육성 대학교육협평가 40→17위 끌어올려"

듭났다. 그는 우선 2006년 3월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미디어를 통합한 단과대학 'IT대학'을 만들었다. 국내 IT대학 TOP 5 내에 진입하겠다는 원대한 꿈도 밝혔다. 이에 연구업적을 제고하고, 국제화를 위한 IT존을 구축해 우수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는 또 신입생은 1년 동안 의무 입소해야 하는 영어기숙사를 만들기로 했다.

"기숙사 내에서는 영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곧 착공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총장은 임기를 1년 반 남기고 있다. 임기를 마치면 자식들이 있는 미국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할 생각이란다. "잘 될지 모르지만 소년시절부터 키워온 꿈을 키워가야지요"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이 총장은 건강하다. 그러기에 충분히 가능할 듯 보였다.

"특별히 건강에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매일 새벽기도에 다니면서 30분씩 걷는 정도지요. 그리고 식사는 세 끼 모두 충분히 합니다. 물론 술과 담배는 하지 않습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장흥 호계리와 동백정

"부산천 범람 막아달라" 別神祭 지내 마을 전통 의례 300년 이상 전해와

전통은 현재로 이어져야 진가를 발휘한다. 3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이 마을 공동체 자료를 기록한 곳을 찾아간다.

1914년 이전 용계면(龍溪面)에 속했던 청주 김씨 집성촌인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와 동백정이다.

호계리는 장흥 최고봉인 제암산(帝岩山·778m)자락이 북서쪽으로 시오리를 치달려 내려선 등성이 아래 위치한다. 동네 북편으로는 장동면 산동과 감나무재에서 발원한 부산천이 흐른다.

부산천은 제암산과 용두산 벽계수가 모여 수세가 좋다. 더욱이 범람할 때 위력이 대단하여 '무서운 내'로 여겨지며, '범내(虎溪川)'라 불렀다. 소용돌이치면서 흐르는 급물살은 동네 사람들의 삶을 위협, 호환(虎患)을 연상케 했다.

급류는 병간·정각쏘에 부딪혀 완화됐지만, 제방을 쌓아 대비했다.

이런 물리적 방제책 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 대동계를 조직하고, 초자연적인 신령에게 무탈을 빌어보는 의례를 만들었다. 바로 유별난 마을제사인 별신제(別神祭)였다.

장흥 호계마을 학등에 있는 동백정.

별신제는 호계천 자갈밭에서 음력 정월 14일에 치러지며, 마을사람들은 '천제(天祭)'라고 부른다. 유교식 제차로 '국조오례의'의 길례에서 볼 수 있는 관제(官祭) 형식을 따르고 있다. 유독 장흥에서만 특이하게 별신제를 쓴다. 용산면 운주리와 관산면 방촌에도 그 유례가 보인다.

호계리에는 1715년 대동창계를 비롯한 20책으로 구성된 동계문서가 보관돼 있다. 1702년 이민기(1646~1704)가 쓴 별신제축문, 대동계안, 집강록, 제관록, 홀기, 풍물 부의책, 상서 2건, 절목 1건이다.

호계마을 냇가 소약보를 건너면 황새고개 학등(63m)에 동백정이 있다. 장동면 만년리 707번지로 노루목(獐項·장항)마을 백호등에 해당한다. 의정부좌찬성을 하다 장흥부사로 부임한 동촌(桐村) 김린(金麟1392~1474)이 동백(冬栢)나무를 심어 정한 곳에 후손 성장(成章)이 1583년 지었다.

동백정은 풍영(風詠)·상영(觴詠)·정사계가 시회(詩會)를 연 곳이며, 문중·대동계·별신제의 회의소와 각종 계모임 장소로도 활용됐다. 박광전의 기문을 비롯 17개의 현판이 걸려 있다.

이 정자는 선비들이 시대를 한탄하고, 자연을 감상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사랑방 구실도 겸했다. 양반과 평민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독특한 누정문화를 보여준다. 1988년 도유형문화재자료 제169호와 풍치보안림으로 지정됐다.

탐진강 상류 예양강(汭陽江)을 끼고 동백정과 함께 용호정, 부춘정, 경호정, 독우재, 영귀정, 농월정이 '칠정계'로 불리며, 시가문학의 한 띠를 형성했다. 2004년 호계마을민속지가 발간됐고, 오늘 문화예술회관 준공식을 갖는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